

30. 너와 지붕에서 지켜낸 백두산 최 씨 일가의 대파 이야기

백두산으로의 답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뤄졌다. 하나는 이상향을 품고 떠났던 우리 민족의 만주 지역 이주사를 쓰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는 술한 세월과 격동의 아픔 속에 80여 년이나 지났지만, 혹시 남아 있을지도 모를 토종 씨앗 때문이었다.

나는 차량 기사 겸 안내인을 대동하고 백두산 아래 첫 마을 내두산으로 향했다. 그는 말이 많았지만 아는 것도 많았고, 지리는 더욱 밝았다. 항일 유격대의 경로, 항일 전투의 세세한 내용까지 모든 꿰고 있는 연변 조선 자치족 작가였다. 그의 도움으로 골골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답사할 수 있었다.

내두산은 백두산의 젖이라 일컫는 두 개의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그 아래에 마을이 형성됐는데, 백두산 아래 첫 마을, 내두산 촌으로 우리 민족들이 30여 호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들이었다. 이곳으로 들어 온 이주민들은 두 경로였는데, 그 첫 번째 이주민은 1900년을 전후로 조선의 학정과 배고픔 때문에 마침 청나라의 봉금도 해제되었고 만주 지역의 옥토가 탐이나 자진해서 넘어온 사람들이었다. 만주에 가면 조가 허리를 두를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넓이가 하루에 걸어서 돌아오기 힘들 정도의 땅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1925년 이후 37년까지 일제의 만주 지역 토벌 작전으로 이미 죽었거나 다른 곳으로 떠났다.

두 번째 이주민은 지금의 내두산 주민들도 1937년 일제의 강제 이주 전략에 의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청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내두산 마을은 관광지로 변해 있어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역사 선전장이 되어 김일성의 내두산 항일 전투까지 지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심는 작물도 이미 소득 작물에 매달리고 있어 팔뚝만 한 옥종 옥수수가 전부였고, 그나마 약간의 식량거리 작물도 이도백하 씨앗 상회에서 사온 것이었다. 거기다 우리 농촌 사정과 비슷하여 젊은 이들은 이미 떠났고, 그나마 남은 땅은 휴경지로 변해 이제는 다시 원시림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백두산의 깊은 산골이라서 남아 있을 거란 생각은 단순한 착각이었다.

이들에 걸쳐 마을에서 경작하는 모든 땅을 둘러봤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었다. 마을 촌장과 서기의 주선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밥을 내게 되어 사람들이 거의 모였을 때도 토종 씨앗을 찾았지만, 찾을 수는 없었다. 같이 간 연변 작가도 실망했는지 내두산을 떠나 여러 마을을 데리고 다녀 봤지만 허사였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35년 마지막 항일 전투가 벌어졌다는 현장을 둘러보고, 일제들의 토벌 진입로를 살피러 마을을 벗어나 내두산 아랫마을까지 갔다. 그곳은 이미 조선족들은 모두 떠났고, 한족들이나 만주족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

안내 작가에 따르면 길을 가다 보면 집 모양만 보아도 한족인지, 조선족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선족은 팔작지붕을 짓고, 한족은 맞배지붕으로 짓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지나다가 우연히 정말로 백두산에서도 보기 힘든 너와집을 발견하고 반가워 그 집에 들렀다. 물론 팔작지붕이라 조선족임을 예상했다.

두 칸짜리 너와집이었다. 지금은 옆에 신식 집을 지어서 그곳은 창고로만 사용했지만, 예전에 방으로 사용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우리는 신기하게 남아 있는 너와집을 구경하며 돌아보다가 깜짝 놀라 내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를 생각해 냈다.

너와 지붕 위에 대파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 이거 봐라.

그러고 보니 밭에는 고추가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특이하게 고추를 씨 뿌림 하고 촘촘히 심었다. 나는 얼른 차에 돌아가 혹시 몰라 준비해 둔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와 주인을 찾았다.

주인은 아주 초췌하고 깎지 않은 수염 탓도 있었겠지만, 얼굴 하관이 꺾죄죄했다. 거기에도 목소리까지 가늘어 매우 피곤해 보였다.

- 남한에서 왔는데요.

- 일 업소.

단호했다.

안내 작가가 다시 나를 소개하느라 애썼다.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씨앗 박물관을 소개했고, 백두산 이야기를 쓰기 위해 찾아온 유명한(?) 작가라고도 소개했지만, 여전히 통명스러웠다.

그는 본능적으로 남한에서 왔다는 사람에 대해 처음부터 살근거리지는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는 조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들을 속인 것이 조국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할아버지는 만주 땅으로 속아서 이주했고, 자식은 돈 벌러 남한으로 가서 돈을 떼이고 돌아왔더니 그럴 만도 했다.

그의 아들은 조선에 가면 돈을 벌어 올 수 있다고 하여 뒷돈까지 주며 돈 벌러 갔다가 죽도록 일하고 사기를 당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 왔으니 조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었다.

-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기꾼이 한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죄송한 일인지는 몰라도, 조국이 한 일을 왜 내가 사과해야 하는지 몰라도, 또 역사가 한 일을 왜 내가 죄송한지 몰라도 괜스레 미안한 감이 울컥하여 나는 백배 사과했다. 징용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 나온 아버지 아니었으면 나도 처지가 같았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사과도 있었지만, 그와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안내 작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 내래 최기성이에요.

내두산 마을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그들은 한이 많은 만큼 말도 많았고 감성이 풍성했다. 그동안은 그것이 아주 조금 거슬리기는 했지만, 이분에게는 도움이 컸다. 할아버지가 만주로 올 때 아버지를 따라온 그였다. 백 년을 이야기해야 하니 해 걸음이 천천히 가지만 바라야 했다.

일제는 재 만주 조선인 토벌이 끝나자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 강제 이주를 추진한다.

그의 할아버지는 만주에 그들이 찾는 이상향이 있다는 일제의 선전에 따라 강제로 고향을 버린 청주 사람 중에 한 분이었다. 듣기로는 청주의 한 고을에서 작은 서당을 했던 분이라 했다. 그러니까 당시로는 지식인이었던 모양이다.

기차에서 내려 한 달 이상 걸어 겨울에 겨우 도착한 곳이 이곳 내두산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때 죽히 종자를 종류별로 많게는 한 말 이상, 적게는 뒷박을 채울 정도 가지고 왔다 한다. 그때 이곳에 심기 위해 가지고 들어 온 씨앗들이 조와 고추, 대파, 뽕씨들이었다. 그 힘든 여정에서도 지킨 씨앗은 배분받을 넓은 땅이 있다는 희망의 크기였다. 그 희망으로 굶으면서 배움켜쥐고 지킨 눈물의 종자였다.

미국 원주민인 체로키 부족이 1883년 미국인들에게 쫓겨나면서 ‘눈물의 길’을 따라 역사적인 행진을 할 때, 새로운 고향으로 떠나면서 자신들의 토종 콩을 가지고 갔듯이 우리 민족이 일

제에 의해 떠밀리듯 강제로 만주로 떠날 때 품고 있던 종자들이 그들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 씨앗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많은 종자를 가지고 눈물의 길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 추위와 싸우고 배고픔은 참으면서 봄을 기다렸다.

그러나 봄이 오자 땅은 넓었으나 개간되지 않은 땅이었고, 그나마 중국인 땅이었다. 식량 하나 주지 않은 바람에 풀뿌리로 연명하다가 겨우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돼서 가지고 온 종자를 야금야금 조서 먹었는데, 남은 것은 꼭 이듬해 중국인에게 임대받은 땅만큼의 씨만을 남겼단다.

- 이 말 들어보겠소? 당신들은 모르겠꾸마.

- 뭘 말입니까?

- 할아버가 벼씨를 가지고 왔는데 이듬해 보니 심을 논이 없재비. 그래서 어째겠썬? 쓸데없이 마지막으로 니밥을 해먹었지비, 그게 그렇게 맛이 있었구마. 그 니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우. 정신없이 맥어댔지. 배가 불러 이제 됐다 싶어 옆을 봤는데 할아버가 울고 있더라말이우다. 난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소!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일제의 조선인 토벌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점점 고립된 생활을 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때 중국인들에게 진 빚 때문에 그들은 해방이 되어서도 조국에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

- 이보라우! 이보라우!

그는 다급하게 부인을 부르는 것으로 취해있던 자신을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 사이사이에 부인을 불러댔다. 씨앗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다. 부인은 고추, 수박, 참외 등을 내놨다.

고추는 본래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씨앗이고, 수박과 참외는 북한을 드나들 때 가지고 온 것들이라 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준 것이 고맙다고 하자

- 그럴 것 아니오. 지킨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종자를 사지 못해 그러오. 지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이도백하에 내려가서 좋은 씨래 구해 심재. 아이 그렇소?

그러니까 그의 씨종자 보관은 돈이 없기 때문이었다. 돈이 없음을 반가워라도 해야 하는가? 조선에서 돈을 떼먹은 사기꾼이 생각났다. 그래, 돈 떼먹은 사기꾼 네놈 때문에 내가 씨앗을 구하는구나. 기막힐 일이다.

내가 너와집에 관해 묻자 그곳이 그들의 신희 방이었다고 했다. 두 칸 집에서 한 칸은 아버지가 살았고, 한 칸은 장가든 그들에게 내준 방이었다 했다.

- 에미나이가 부끄러워 아도 마이 못 나왔소.

그가 농담했다. 한참이나 그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 말 보다는 대파에 관심이 있음을 말했다.

- 왜, 너와 지붕에 있는 대파 씨는 없나요?

- 아, 그거이 말도 마오. 이제 하마 이제는 그곳에 그냥 놔두오.

그러니까 언젠가 그도 대파 씨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씨를 그러잡아도 자꾸 잃어버려 한숨이 큰데 대파 씨까지 잃어버렸으니 마누라만 닦달했다는 것이다. 아마 지금의 새집을 짓고 너와집의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하필 대파 씨 봉투만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것을 대파 파종할 때 알았으니 다시 너와집을 뒤지고 살림살이를 다 꺼내 봐도 찾을 수가 없어 포기하고 말았단다.

그런데 늦봄이 되자 너와 지붕에서 파릇파릇 송곳처럼 판자를 뚫고 나오는 것이 자세히 보니 대파더라. 그러니까 너와 지붕이 나무였는데, 오래되어도 갈지 않았기에 그것이 썩어 부토

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대파 씨가 날라 와 몇 년이고 나고 자라면서 지붕 위를 짝 채운 것이었다.

그 뒤부터는 대파 씨는 따로 받아놓지 않고 지붕에서 몇 알 떼어내어 종자로 쓰고 나머지는 지붕 위에 보관해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종자 보관소는 바로 지붕 위였다. 다들 헐고 새로 지으라고 한다지만 대파 때문에 헐지 못하다며 이제는 제법 너스레까지 떨고 있었다. 대파가 그 지붕 위 있는 한 너와 지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최 씨 아저씨가 있는 한 그의 대파는 그곳에서 너와 지붕을 잘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내가 갔을 때도 너와 지붕위의 대파가 씨를 꽃을 피우고 있었다.

조국을 싫어했지만, 그래도 조국 사람 만나니 반갑다며 친절하게 맞아 준 백두산 아래 최기성 선생, 차마 함께 사진을 찍자는 것이 미안해 그냥 나오자 그래도 사진은 찍어야 할 것 아니냐며 조선을 다녀온 후 더 쭉그러든 아들을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다.

그리고 내 가방에는 다시 100년 만에 그들이 가지고 갔던 고추와 대파 씨, 그리고 북한 수박과 참외가 가지런히 놓인 채 조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